

종합·해설

‘文 대 非文’ 참여정부 실패론 뜨거운 공방

민주당 서울서 예비경선 마지막 합동연설회

文 “비전 경쟁” ... 非文 “문으로는 못 이긴다”



민주당 문재인(왼쪽부터), 김정은, 김두관, 정세균, 김영환, 조경태, 박준영, 손학규 대선 예비후보가 28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합동연설회를 마친 뒤 정권교체를 다짐하고 있다. /연남뉴스

민주당 대선주자들은 27일 대전에 이어 28일 서울에서 대선 예비경선(컷오프) 마지막 합동연설회를 갖고 사력을 다해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연설회에서도 ‘참여정부 실패론’이 주요 쟁점이었다. 손학규 후보는 “정권을 빼앗긴 데 대해 책임 있는 세력이 제대로 반성도, 성찰도 하지 않고 ‘총체적 성공’이라고 여지를 두고 있다”며 문 후보를 비판했다. 그는 또 “민생실패, 대선실패, 지난 4월 총선실패를 불러온 무능·무반성의 3패 세력의 패권정치로는 결코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몰아세웠다. 김두관 후보는 자신도 범진노(친노무현)로 분류되면서 친노 후보인 문 후보를 공격한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어떤 후보는 내가 참여정부를 비판했다고 하는데 잘못된 것은 계속하고 잘못된 것은 반성하지 않았다”며 “노무현 정신을 망각하고 기득권과 패권에 빠진 당내 세력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문 후보는 “부족했던 점은 제대로 성찰해야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나는 누구보다 더 무겁게 성찰해야 할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5년 전 ‘참여정부가 무능하다’는 프레임에 빠져 민주당 10년의 자긍심을 잃은 채 선거에 임해 참담하게 패배했다”면서 “이번에도 당내 선거에서 이기는 데 급급해 5년 전 (과오를) 되풀이해선 안된다”고 반격에 나섰다. 정세균 후보는 “불통, 독선, 잘못된 역사관과 기회주의의 대명사인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패배시켜야 한다”면서 “민주당의 정체성이 확실한 준비된 후보가 박근혜 허상을 압도할 수 있다”고 했다. 김정은 후보는 “분열을 주도했던 분, 연대만을 말하면서 민주당의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했던 분들은 다 어렵다”며 선두권 후보를 싸잡아 공격했다. 김영환 후보는 “국민이 믿지 못하

는, 중복문제를 풀 못하고 선거부정을 해결 못하는 정당과 연대하면 정권교체를 이룰 수 없다”면서 “우리의 힘과 동력으로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은 후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제2의 을사늑약”이라며 “대통령이 되면 가장 먼저 한미 FTA를 폐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경태 후보는 “짧고 패기있는 후보로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면서 “국민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27일 대전에서도 문재인 후보와 ‘비문(非文·비문재인) 후보’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김두관 후보는 “총선 때 처러준 밥상을 걸어찬 사람, 공동정부 제안으로 당을 위기에 빠뜨린 문재인 후보로는 절대 이길 수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손학규 후보는 “반성과 성찰없이 돌아온 참여정부는 다시 정권을 달라고 할 수 없다”며 날을 세웠다. 박준영 후보도 문 후보를 겨냥, “제2의 참여정부를 건설하겠다고 하면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겠다”라며 “역사에서 패전지장을 내세워 이기는 전쟁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문 후보는 일단 당내 후보들의 공격과 관련해 “당 밖의 주자들은 월드컵에 먼저 가 있는데, 우리 당 대표 주자는 국내 선발전에서 거친 플레이에 부상당할 지경”이라며 “후보끼리 깎아내리는 경쟁이나 우리 정체성을 부정하는 경쟁 말고, 자기 비전을 말하는 경쟁을 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준영 광주·전남 자존심 세울까

‘安風’ 잠재우기 총력

컷오프 통과 땀 대선정국 중요 역할 ... 탈락 땀 지역정치권 책임론

새누리당 부안·울산 합동연설회 ... 박근혜 대세론 공방

민주당의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컷오프)이 29~30일 이틀 동안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박준영 전남지사의 본선 진출 여부에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현재 관세로서는 박 지사가 8명의 후보를 5명으로 압축하는 컷오프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각 대선 캠프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당원 및 국민 여론조사 결과, 박 지사는 5~6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5위로 나온 결과가 더 많지만 6위와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아 박 지사의 컷오프 통과는 미지수인 현실이다. 이에 따라, 박 후보 캠프에서는 광주·전남 지역민과 당원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박 지사가 컷오프를 통과할 경우,

광주·전남지역의 대표성을 확보해 본선은 물론 대선 정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날이 갈수록 쇠락해 가는 박 지사의 ‘광주·전남지역 정치권의 위기’를 극복할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특히, 박 지사의 본선 진출은 친노·486 등 특정 세력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민주당의 내부 역학구조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박 지사 캠프 관계자는 “박 지사의 도전은 민주당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호남의 자존심을 되찾기 위한 선택”이라며 “민주당이 특정 세력 등에 의해 독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역민의 지지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박 지사가 컷오프에서 탈락한다

면 상당한 후폭풍도 예상된다. 당장, 광주·전남지역 정치권은 대선 주자 한 명 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변방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박 지사의 컷오프 탈락은 개인의 문제를 떠나 지역 정치권의 책임론으로 확산되면서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에게도 불뉘어 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의 일부는 제외하고 박 지사를 지지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 가능성을 떠나, 박 지사의 컷오프, 박 지사의 ‘도전’이 성과를 거둔다면 무기력증이 빠져있는 지역 정치권에 신선한 바람을 불고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

새누리당 대선 경선 후보들은 27일 부안 사직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부안·울산지역 합동연설회에서 ‘야권 연대 및 안풍 잠재우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여당의 뒷받침으로 여겨온 부안·울산에서 야권의 추격세가 만만치 않음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4·11 총선 당시 부안에서의 민주당합당·통합진보당의 지지율은 40%를 넘었다. 지지율 상승세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부안 출신이고 민주당합당 문재인 상임고문은 부안 상에서 새누리당 후보를 놓쳤다.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분열과 갈등을 선동하고 약속을 막 벗듯 뒤집는 세력, 불안하기 짝이 없는 야권연대 세력에게 어떻게 미래

를 맡길 수 있겠느냐”며 “새누리당이 반드시 이겨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에 이어 이날도 박 전 위원장과 비박 지지자들의 공방은 계속됐다. 김문수 지사는 “과거 이회창 대세론보다 더 허약한 것이 박근혜 대세론”이라고 꼬집었다. 박 전 위원장의 협공이 거세지고 있음을 의식한 듯 “올림픽과 선거가 다르지 않다”며 “탐이 어려울 때 피하거나 동료를 비난하지 않고 서로 격려하며 힘이 돼야 승리할 수 있다”며 방어막을 쳤다. “우리가 남이가”를 선창하며 연설에 나선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은 “신공방이 들어오면 부안에 들어와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g.m 광주시립미술관 개관 20주년 특별 전시展



어린시절 그리운 모든것 화폭에 담다

박동일 작 **‘내 마음의 꽃밭’** 화려하고 가득하다. 빈 구석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작가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모아놓았을까. 소년을 비롯, 꽃과 숲, 새, 잠자리, 악보 등 온갖 기호들이 자유롭게, 구석구석 채워지면서 역동감과 선율감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소년의 아코디언 연주에 맞춰 춤을 추는가 하면, 악보 위에 떠오른 무지개에 앉아 감상하는 정령들의 모습은 마치 음악회에 초대된 듯하다. 이것도 부록해서 나온 LP음반을 그려넣기까지 했다. 박동일씨의 작품 ‘내 마음의 꽃밭’은 통화적 상상력이 넘친다. /김지경기자 dok2000@

빛의만정 - 김중두



국민들 정신 없을 때 ...

Large advertisement for Lotte Department Store (롯데제이티비) featuring travel packages, hotel deals, and various services.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and promotional offers.